

# 브라질 Bio디젤 · 에탄올 동시생산

## 동시생산 플랜트 첫선 ... 2007년 34개 공장에 생산량 22억리터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브라질이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처음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월21일 보도했다.

브라질 정부는 11월21일 중부 마토 그로소 주(州) 바하 도 부그레스 시(市)에서 바이오디젤-에탄올 동시생산 공장 가동식을 가졌다.

가동공장에서는 이미 연간 1억5000만리터의 에탄올과 4만톤의 설탕이 생산되고 있으며, 콩과 해바라기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은 앞으로 연간 5700만리터를 생산해 브라질 14개 바이오디젤 공장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브라질 에너지부 관계자는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함에 따라 대체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인근 90여개 도시를 중심으로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에서는 현재 전국 3500여개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을 판매하는 등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6년 연말까지 바이오디젤 공장을 21개로 늘려 연간 생산량을 5억8000만리터로 늘린 뒤 2007년에는 공장 수를 34개로 확대해 생산량을 22억리터 수준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 농산물 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지역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토 그로소 주는 1985-2004년 사이 국내총생산(GDP)이 315% 증가해 브라질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2>